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7월 18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철강화학과 문동민 과장(2110-5641), 정두식 사무관(2110-5644)

산업부-석유화학업계, 셰일가스 개발 등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에 나서…

- 18일, 석유화학협회에서 산업부-석화업계 CEO 간담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7월 18일(목) 12시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의실(종로구 율곡로)에서 석유화학기업 CEO를 비롯한 가스공사, 석유공사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,

○ 최근 北美 셰일가스 개발, 對중국 석유화학제품(에틸렌 등) 수출 여건과 중동 범용제품의 對중국 수출 확대 등 석유화학업계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함

□ 현재, 세계 석유화학시장은 2011년 하반기 이후, 글로벌 재정위기 및 중국경제의 低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나,

○ 최근 중국 과잉재고 해소 및 글로벌 경기 소폭 회복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비록 더디지만 회복 싸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

○ 그러나, 北美 셰일가스 기반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의 신·증설이 완료되는 2016~2018년 부터는 국내 나프타 기반 생산설비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어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

* 北美는 값싼 셰일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 생산, 우리나라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

□ 이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

○ 우선,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現地 천연가스(셰일가스 등)를 기초 원료로 한 해외에 석유화학 생산설비 구축을 적극 검토키로 함

추진사례 : 우즈벡키스탄 수르길 프로젝트

◆ 개요 : 우즈벡키스탄 수르길 천연가스전에서 생산한 메탄가스와 컨덴세이트를 활용한 現地 PE, PP 생산시설 건설('16년 가동 예정)

◆ 합작투자형태 : **우즈벡키스탄 석유가스공사**(UNG) 50%, 한국 지주회사 (**가스공사**, **롯데케미칼**, STX에너지) 50%

◆ 생산규모 : 메탄가스 250만톤, PE 40만톤, PP 80만톤 등, 한국의 나프타 기반 원가 대비 34% 수준으로 생산

○ 아울러,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생산설비 인수, 기존설비 확충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방안도 논의함

외국의 대형화 및 전문화 추진사례

◆ **(日本)** 범용사업 철수, 생산설비 통합 및 고기능·고부가제품 집중

* Mitsubishi Chemicals社는 鹿島단지 No.1 NCC(39만톤) 가동 중단(이미 PVC, TPA, SM 등에서는 사업 철수 단행)

* 日 NCC 설비 통합 : Idemitsu Kosan社↔Mitsui Chemicals社 (92만톤, '10)
Asahi-Kasei社↔Mitsubishi Chemicals社 (67.5만톤, '14)

* Shin-etsu社 : 실리콘 수지, Mtsui Chemicals社 : 고부가 PP chain, Sumitomo社 : 고기능성 필름

◆ **(北美)** '11년 M&A 83건, 820억불('10년 66건, 390억불)로 사상 최대

* Eastman Chemical社의 Sterling Chemicals社 매수('11.6), Braskem社의 Dow Chemicals社의 PP사업 매수('11.8)

◆ **(EU)** 역외 지역기업으로부터의 매수, 범용품에서 글로벌 기업 탄생

* BASF社와 Ineos社의 스티렌계 수지 합병('11.7), Ineos社(中)와 Grangmouth社(英)가 Refinery(佛) 인수('11.2)

○ 또한,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석유화학단지 고도화를 위해 석유화학단지 통합운영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함

- 이를 위해, 석유화학기업간 잉여 에너지·부산물 교환, 생산설비 공동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배관망*을 설치하는 한편, 이를 관리할 단지內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논의함

  * 개별기업의 Pipe 연결을 위한 부지 확보, 설치비용 및 인허가 등 설치애로 해소를 위해 부생 H_2, 스팀, LPG원료, 부산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배관 연결 지원

- 아울러, 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"중소기업 종합지원시설" 건립 및 안전사고 예방 상시교육을 담당할 "화학공정기술교육원" 설립도 추진키로 함

○ 한편,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및 공정고도화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셰일가스 대응형 화학소재 및 공정기술도 개발키로 함

○ 이날 업계는 수출 확대를 위해 韓-中 FTA의 조속한 체결, 韓-아세안 FTA의 관세혜택 미향유 품목에 대한 상품협정 개정 뿐만아니라 韓-인도 CEPA의 관세양허 제외품목 개선*도 요청함

  *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3대부문(합성수지, 합섬원료, 합성고무)의 인도 양허제외 비중은 우리나라(발효일 : 2010년 1월)가 31.6%(24개품목)이나 일본(발효일 : 2011년 8월)은 8.4%(13개품목)에 불과

□ 이날 정부와 업계는 이상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민·관 공동의 "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"을 하반기중 수립하여 추진키로 함

□ 윤상직 장관은 현재 우리 석유화학기업은 범용제품 위주의 생산구조에 對中 수출비중도 높아 중국의 수출 및 경기변동에 취약한 상황에서,

○ 北美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가 우리 석유화학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,

○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어려운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정두식 사무관(☎ 02-2110-56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산업통상자원부-석유화학업계 CEO 간담회 개최 계획**

□ 개최 배경

○ 北美 셰일가스 개발* 등 석유화학업계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 확산

  * 北美 셰일가스 생산추이(억톤, 전체 천연가스 대비 비중) : ('10) 4.85(23%) → ('20) 5.27(36%)

○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석유화학업계 CEO들과 논의

□ 간담회 개요

○ 일시/장소 : '13. 7. 18(목) 12:00~13:30 /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회의실(서울 종로)

○ 주요 참석자 : 총 20여명

- **(우리부)** 장관님, 소재부품산업정책관, 철강화학과장
- **(유관기관)** 가스공사, 석유공사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
- **(업계)** 금호석유화학, 롯데케미칼, 삼성석유화학, SKC, SK종합화학, LG화학,여천NCC, OCI, GS칼텍스, 한화케미칼, 효성 등

○ 주요 논의사항

- 석유화학 당면현안 및 대응전략
- 토론 및 업계 애로사항

□ 세부 일정

시 간	진행 내용	비고
12:00~12:03 (3')	기념 촬영	참석자 전원
12:03~12:06 (3')	개 회	사회 : 석유화학협회
12:06~12:10 (4')	모두 말씀	장관님
12:10~12:20 (10')	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	발표 : 철강화학과장
12:20~13:20 (60')	토론 및 건의사항 논의 (오찬 병행)	진행 : 장관님
13:20~13:24 (4')	맺음 말씀	장관님

□ 참석자 명단 (총 19명)

연 번	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
1	정 부 (3명)	산업통상자원부	장 관	윤상직
2		산업통상자원부	소재부품정책관	최태현
3		산업통상자원부	철강화학과장	문동민
4	유관기관 (4명)	한국가스공사	본부장	이종호
5		한국석유공사	본부장	정창석
6		한국무역보험공사	본부장	이규철
7		한국수출입은행	부행장	홍영표
8	업 계 (11명)	한화케미칼 (협회장)	사 장	방한홍
9		금호석유화학	회 장	박찬구
10		롯데케미칼	사 장	허수영
11		삼성석유화학	사 장	정유성
12		SKC	대 표	정기봉
13		SK종합화학	사 장	차화엽
14		LG화학	사 장	박진수
15		여천NCC	사 장	박종국
16		OCI	부회장	백우석
17		GS칼텍스	부사장	허세홍
18		효성	부회장	이상운
19	단 체 (1명)	한국석유화학협회	부회장	김창로